

“미국, 수출위한 모든 연구 끝낸 상태”



정 찬 길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지금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격론을 벌이고 있다. 하대중 실장은 단정적으로 냉장육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또한 발표자는 생체가격이 수입·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그 이론에 수긍할 수 없다.

수입과 수출에는 생체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양돈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현실은 크게 달라진다. 과거에는 국내가격이 하락할 때 가격보전이 가능했으나 개방시대에는, 쇠고기가 엄청난 양으로 수입되는 현실속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또 정부가 무역장벽을 동원해서 결코 양돈농가들

을 보호해줄 수 없다.

지금까지 돼지 생산비는 계속 상승해왔고, 공해규제 강화 등으로 앞으로도 생산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돼지 생산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보통 생산비를 1% 내리려면 5~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생산비를 몇년 안에 20~40%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어떻게 이런 발표가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실험데이터가 나와서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UR대책으로 발표되는 이같은 문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고 짚고 넘어가

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양돈 생산비가 20~30% 떨어질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임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지난해 미국은 돼지고기를 2만 3천톤 수출했고, 17만 4천톤 수입해서 약 10만톤의 돼지고기를 더 수출했다. 미국은 완전 개방으로 수입과 수출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순전히 생산자 위주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주제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삼겹살은 냉장육과 냉동육이 547원밖에 차이가 없다. 냉동육이기 때문에 수입이 가능하고, 냉장육이기 때문에 수입이 어렵다는 얘기는 바로 가격차이 때문이다. 미국의 삼겹살은 규격에 따라 28~47\$까지 차이가 많이 나나 single rib-

bed의 경우 국산규격과 거의 같고 가격도 국산보다 훨씬 싸다.

미국은 5개월 단위로 생산비를 발표하고 있으며, 산지가격은 연간 kg당 716원에서 1,640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격이 낮을 때는 엄청나게 낮다. 따라서 수출을 할 때는 평균 가격 개념이 아니라 어느 가격 시점에서 돼지를 수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서 발간하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주 수출시장은 북미이나 일본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 냉장육 수출량이 늘고 있다. 연간 1억 1천만두의 돼지를 도축하는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수급사정에 따라 수출입이 이루어진다. 미국은 또 check off system을 통해 미국의 도축장 생산라인을 변경할 경우(수출용 생산라인)의 타당성 연구를 모두 끝낸 상태이다.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안내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국에 이익이 되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라도 생산라인을 바꿀 것이 틀림없다. 이밖에도 냉장육 유통기간을 상당기간 연장시킬 수 있는 연구도 끝내 놓은 상태이다. 또한 PST(자연산 돼지성장촉진제)에 대한 시험을 모두 끝내고, FDA에 사용허가 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다. PST를 사용할 경우 사료효율과 증체율이 7~32%, 등지방두께는 12~32%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PST를 사용할 경우 생산성이 크게 증가될 것이 틀림없다.

이와 같이 미국은 생산기술, 유통, 가공, 생산비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연구·준비하고 있으며,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세계 각국에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쿼타제에 의해 수입량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국

에 대한 수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국내에 미국의 돼지 생산비가 잘 못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돼지 생산비중 자돈비와 사료비가 73%이고, 노력비가 18%이다. 사료비는 47.5%로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을 약간 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돈생산비와 사료비를 줄이는데 모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생산농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일본은 '97년 돼지고기 시장이 자유화된 후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사육호수는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호당 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자급률은 60~70%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수입개방할 때 한국의 양돈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에 대한 사전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